

리스크 관리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리스크 관리는 기업 지속가능성과 창출에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화학 기업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전략적 시나리오 구축을 요구 받고 있으며 또한 구성원 인권·안전 이슈 등에 대한 관심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당사와 관련된 주요 리스크를 체계화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각 리스크별 최적화된 대응방안 및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리스크 분류 및 보고체계

SK이노베이션은 보다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영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를 운영 및 산업, 재무 등 3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운영 리스크는 윤리, 준법, 인사, 안전·환경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SK이노베이션의 리스크별 주관부서가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 경영총과 자회사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 리스크 종류에 따라 최고 경영층 회의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산업 리스크는 사업 성과, 신규 투자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유가, 지역 정세, 규제 등의 외부 환경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SK이노베이션 계열 회사의 주관부서가 관리하며 각 회사 경영총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자회사 CEO와 관련 부서 임원들이 참석하는 리

스크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 리스크는 유가, 환율, 세무, 신용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SK이노베이션과 각 자회사 간 업무 연관성으로 인해 일부 주요 리스크에 대해서는 SK이노베이션 CEO 및 5개 자회사 CEO 등이 참석하는 최고경영층 미팅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필요 시 안건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리스크 모니터링

SK이노베이션은 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리스크별 배경 및 특성에 최적화된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산업 리스크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정책 동향,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인트라넷과 뉴스레터를 통해 전사에 주요 동향을 공유함으로써 자율적인 리스크 예방 인식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성과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가와 환율 변동 등의 재무 리스크에 대해서는 SK이노베이션과 각 자회사별로 다양한 경제지표에 기반하여 단기적 방향성과 중장기 동향을 분석하고, 해당 리스크의 감내 가능한 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 Emerging Risk

SK이노베이션은 환경, 사회적 변화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사업 전반에 미치는 장기 리스크 요인을 도출하며,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Emerging Risk	Business Context	Risk Impacts	Mitigation Actions
 <p>다양한 글로벌 규제 및 불안정한 석유가격</p>	<p>2015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인 유가상승으로 인해 2017년 12월에는 배럴 당 평균 64달러를 기록한 바 있으나, 보호무역 기조의 강화를 비롯해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상황 등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글로벌 경제 상황을 비롯하여 날씨 등의 천재 지변, 사업장 운영 문제 등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지역 정부의 특성 또한 큰 축을 차지합니다.</p> <p>대한민국과 같이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이러한 지역정부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별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지역 정부의 정책이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또한 확대될 전망입니다.</p>	<p>글로벌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원유가격과 석유제품의 생산가격이 달라짐에 따라, 손익과 현금흐름 그리고 수익 구조에도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유의 수급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선적과 도착 기간 사이의 원유가격 차이 또한 중대한 재무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p> <p>석유의 수입, 판매에 대한 규제를 비롯해 각종 석유화학 제품의 규격 등의 정부 규제는 사업 영위에 있어 필수적 고려 요인이며,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 관련 법규의 위반은 재무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 중국 등 신흥국가에서도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유훈유 생산과 같은 사업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p>	<p>· 시장의 역학관계(Dynamics)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한 운영 최적화(Optimization)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트레이딩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p> <p>· 글로벌 석유제품 규제 강화에 따른 탈황설비 신설을 비롯해, 글로벌 지역 정부의 규제에 부합하는 고급 유훈유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p>
 <p>거래 관계 및 제품 판매 과정에서의 공정성</p>	<p>윤리적 경영활동을 비롯한 공정한 거래는 기업 경영활동의 기본 전제조건으로서, 정유사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정유사와 주유소와의 거래 관계 공정성, 나아가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 석유가격의 측정 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p> <p>특히, SK이노베이션은 국내 주유소 중 30.7%를, 판매량 기준 32.4%를 차지하는 등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거래량 또한 많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래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p>	<p>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를 비롯해 SK그룹에 속한 다양한 계열 회사와 거래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최근 5년간 해당 이슈로 법적 제재는 없었지만, 시장 점유율의 안정적 유지를 목적으로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는 공정거래 법규 위반으로 시정조치와 더불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재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 명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류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은 브랜드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됩니다.</p>	<p>· SK이노베이션은 계열사 간의 거래 시 본사 Biz. Compliance팀의 협조를 의무화하여 부당지원성의 존재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p> <p>·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등 협력회사와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p>
 <p>기후변화</p>	<p>2015년 12월 파리기후변화협정 채택 이후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p> <p>특히, 국내에서는 최근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인센티브를 통한 전기차 판매 촉진을 비롯하여 완성차 기업의 연이은 내연기관 차량 판매규모 감소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p>	<p>석유 정제를 비롯해 운송, 보급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따른 투자와 생산비용 상승이 야기되고 있으며, 세계투자은행(World Bank)은 2019년부터 석유 시추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발표하는 등 장기적으로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p> <p>국내에서도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법 규제 강화와 이로 인한 설비 투자 비용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확대를 비롯해 완성차 회사들이 가솔린과 디젤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을 연이어 출시함에 따라 재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계 각국의 환경 규제와 더불어 전기차자동차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성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친환경 전기차시장의 빠른 성장과 폭넓은 확대가 예상됩니다.</p>	<p>· SK이노베이션은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으로 인한 시장 환경 및 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 전략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p> <p>· 장거리 전기차 전지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배터리 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관련 기술 연구 및 투자를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생산설비를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있습니다.</p> <p>· 사업장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여 연간 약 6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p>